



최근 국내 재보험산업의 현황과 전망

김석영 연구위원

요약

■ 최근 국내 재보험산업은 연성시장(Soft Market)화, 일반손해보험 효율제도의 변화, 신규진입 등으로 말미암아 경쟁이 가열될 것임. 국내 재보험회사들은 대형사고로 큰 손실을 입었으나 재보험시장이 세계적으로 연성시장화되어 효율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지금까지 재보험회사가 제공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사용하던 협의효율 사용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회사 의존도가 줄어듦 것으로 전망됨. 한편 올해 안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재보험시장에 새로운 재보험회사가 각각 진입할 예정이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시장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재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위험 인수 노력 등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재보험회사의 실적이 회사별로 명암을 달리하면서 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며, 세계 재보험시장은 강한 연성시장(Soft Market)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재보험효율 인상도 쉽지 않음.

- 코리안리는 2015년 9월 말 현재 누적 당기순이익이 1,774억 원에 이르나, 뮌헨재보험과 스위스재보험은 각각 -29억 원, -79억 원의 손실을 기록함.
 - 최근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사고, 사우디 쿠라야 발전소 모래폭풍 사고, 중국 텐진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재보험회사들의 손실이 급증하였음.
- 생명보험 재보험시장은 시장경쟁으로 영업마진이 낮은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고령자 대상 신상품 출시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세계적인 양적완화로 자본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 자본조달가격이 하락하여 재보험회사들의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재보험효율을 충분히 인상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10월 발표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일반손해보험 효율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회사 의존도가 줄어듦 것으로 전망됨.

- 보험회사가 스스로 결정하는 비통계 자체 판단효율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보험회사의 도움 없

이 요율 산출이 가능해지고 재보험 출재도 필요치 않게 되었음.

- 지금까지 주로 재보험 출재를 전제로 기업성 일반손해보험의 협의요율이 사용되어 왔음.
- 향후 손해보험회사는 자체판단요율 사용 계약에 대해 보유하거나 동 요율을 수용하는 국내외 재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어 기존 재보험거래와 전혀 다른 시장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

● 그러나 협의요율 및 자체판단요율 등 일반손해보험 요율체계의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미미할 수도 있음.

- 개정안은 자체판단요율에 대해서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평가액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협의요율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1일까지 적용을 연기함으로써 협의요율이 당분간 시장에 큰 변화 없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올해 안에 새로운 시장참여자가 재보험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재보험회사들과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음.

- ACR(Asia Capital Reinsurance Group)과 Pacific Life Re는 그동안 국경 간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일반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시장에 각각 참여하여 왔으나 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지점을 설립하고 영업을 할 예정임.¹⁾
- 또 다른 해외 글로벌 손해보험회사도 국내 일반손해보험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 손해보험 재보험시장의 경쟁은 향후에 격화될 수 있음.

■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와 경쟁 심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재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위험인수 검토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재보험회사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서 사이버 리스크, 전염병 리스크 등과 같이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리스크를 인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새로운 위험에 대한 경험과 요율이 부재한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은 재보험회사의 도움으로 동 위험을 인수할 수 있을 것임. **kiri**

1) 각사는 작년과 올해 초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를 각각 받았음.